



호남선 KTX 개통 1년 이용객 빅데이터 분석

여수·순천은 '관광 여가' 광주·목포는 '업무 출장'

전남도가 호남고속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관광객 증가, 수도권 인구의 소비 증대 등의 혜택이 전남 서부권보다 동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순천·목포를 지나는 호남선은 주로 업무·출장, 그리고 여수·순천을 주요 정차역으로 하는 전라선은 관광·여가를 목적으로 이용됐다.

전남도는 22일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고속철 이용객이 전년보다 60% 증가했으며,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고속버스와 항공이 각각 56.4%, 4.1%에서 48.0%, 3.2%로 감소한 반면 고속철은 14.9%에서 24.1%로 늘었다"고 밝혔다.

고속철 이용객 60% 늘어

분석 자료가 된 빅데이터는 철도, 고속도로, 고속버스, 항공 등의 공공데이터, 신용카드 매출, 통신사 유동인구 등 민간 데이터, 상하행선 승객 927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집했다. 전남도는 이들 빅데이터를 통해 호남고속철 개통 전후 교통수단 이용 변화, 방문 목적 및 소비 변화, 접근성 및 연계교통체계 등을 분석했다. 이용객 동선과 목적 조사에서는 광주·목포는 전남지역에 주소지를 둔 유동인구 비율이 43%, 여수는 서울·경기 주소지의 유동인구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관광을 목적으로 고속철을 이용한 방문객은 10대와 50~60대 여성으로, 주로 단체로 방문하는 특성을 보였다.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여수의 카드 매출은 2014년 대비 수도권 인구

의 소비 점유율이 10.1%에서 개통 이후 13%로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의 총 카드거래금액은 2014년 대비 64% 늘어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 시점의 소비 규모를 넘어섰다. 반면 목포는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수도권 인구의 카드 매출이 11.4%에서 11.3%로 오히려 하락했다.

수도권인구 카드매출 급증

여수시내 주요 카드 매출은 돌산읍 돌산공원과 해상케이블카, 엑스포해양공원, 오동도, 봉산동 요식업 밀집 지역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돌산읍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여수시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의 6%, 7%에 불과했다가 개통 이후인 2015년에는 16%로 급성장했다.

전남도는 수도권 방문객 중 주요 소비집단은 20대 여성과 장년층으로, 여성은 전체 카드 거래 금액 중 33%를 차지하는 요식업 소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영광 등 교통 연계 시급

도 호남선의 영향권 및 연계 교통체계를 분석한 결과 거주 인구 상위지역이면서 영향권에서 배제된 광양시, 영광군, 강진군, 장흥군 등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포시는 인구의 95%가 목포역 접근시간 30분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33면에 불과해 협소하고, 여수시는 항일암 등 일부 관광지의 접근성이 미흡한 것이 개선과제로 꼽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앞드린 더민주 김종인 '長考'

"잘 모시지 못해 송구" 비대위원 전원 유감 표시 김 "내 번호는 빼놓으라" ... 사퇴 가능성 남겨

Ⓢ '선택 4·13' 총선 D-21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순위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하루종일 들끓었다. 비례대표 명단과 순위가 중앙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당무 거부에 돌입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2일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혀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갈등

은 내연하고 있어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비례대표 후보명부 작성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한 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비례대표 순위에서 "내 번호는 빼놓으라"며 엄

포를 놓기도 해 여전히 사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명부 작성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한 것은 비례 후보에 김 대표를 포함할지, 어떤 순위를 부여할지를 비대위가 판단토록 하는 의미를 지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는 김 대표에게 비례 2번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비례 명부가 확정되는 대로 김 대표에게 이를 보고한 뒤 추인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언론은 사퇴나 아니냐를 보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 대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무 거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비대위를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의결사항을 다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비례대표 선정을 위해 중앙위가 열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고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비대위들에 대해서도 "일반 당원들과 달리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서운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원들은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계속 당을 이끌어달라"고 대표 표지 수행을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비대위원들이 대표를 잘 모시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이 있었지만, 비대위원 전원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을 비례 2번에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비례대표 명부를 중앙위에 상정했지만, '셀프 공천'이라는 반발을 받았고 비례대표 명부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 21일부터 당무 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문제가 전 대표가 이날 오후 급거 상경, 김 대표의 구기동 자택을 찾았다. 회동 후 문 전 대표는 "끝까지 당을 책임지고 우리 당의 간판으로서 이번 선거를 이끌어줘서 야권의 총선 승리를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후 김 대표는 비대위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당무에 복귀했다.

한편, 더민주 중앙위는 이날 새벽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및 순위를 확정했다. 전문·비(非)운동권 출신 인사들은 후순위로 밀린 반면 운동권 출신 인사들과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진문(甄文) 인사들이 당선 안전권에 대거 배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22일 오후 환자가 입원해 있는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국가입원치료병상에서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양 40대 男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확진

광양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6면> 22일 질병관리본부와 전남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양시에 거주하는 이모(43)씨가 이날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PCR)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9일까지 22일간 국내 한 기업이 브라질 세아라주에 건립중인 제철소 공사현장에 엔지니어 자격으로 체류했으며,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에는 광양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씨는 16일부터 미열과 근육통이 발생해 18일 광양에 있는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열제와 근육통 완화제를 처방받았다. 하지만 발진 등 증상이 계속되자 21일 다시 병원을 찾았고, 22일 보건당국이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

브라질서 모기에 물려 전남대병원 격리치료

이씨는 16일부터 미열과 근육통이 발생해 18일 광양에 있는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해열제와 근육통 완화제를 처방받았다. 하지만 발진 등 증상이 계속되자 21일 다시 병원을 찾았고, 22일 보건당국이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서 격리돼 치료 중이다. 전남대병원 감염내과 장희창 감염관리실장은 "이씨는 현재 발열과 두통이 사라지고 일부 발진도 자연치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학적·퇴원 가능한 상태이지만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확진 사례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정밀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퇴원 시점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4·13 총선 순천 대진표 확정 ▶5면
순천만국가정원 문화 꽃 '활짝' ▶11면
광주, 시간 속을 걷다 -용문당 ▶18면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HERA OIL SERUM MAGIC FORMULA

● 유명화형제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요금무료) www.hera.co.kr